

학습이론을 통한 대학 글쓰기의 과정과 교육방법 고찰

임 선 숙*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학 글쓰기 커리큘럼이 단계적 과정이 아닌 나열적으로 제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발전적이고 확산적이 글쓰기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학습이론 중 학습자들의 지식 형성과 발전에 주목한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한 사회 구성주의를 전제로 글쓰기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대학 글쓰기의 목표를 ‘학문 공동체로서 담화능력의 강화와 성장’이고 보고 인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수평적으로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담화능력이 점진적으로 발전, 확대할 수 있도록, 또한 사회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수직적으로는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이론과 기능들을 각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탐색과 글쓰기’인데, 이는 자기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으로 자기 성찰적 글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수행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텍스트 분석과 글쓰기’이며, 이는 텍스트 읽기와 분석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으로 서평과 문화비평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소통과 글쓰기’이며, 이는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시론, 시평, 칼럼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적 사유와 글쓰기’인데, 이는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타자와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통합적 글쓰기로 소논문과 학술논문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아-타아-사회-통합적 사유’, 즉 자아의 이해에서 출발해서 타인과 사회와 소통하고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단계적 글쓰기 교육 통해, 학습자들을 학문 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담화능력 강화라는 대학 글쓰기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기 탐색, 텍스트 분석, 사회적 소통, 통합적 사유, 대학 글쓰기, 글쓰기 과정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글쓰기 교육의 단계별 과정 |
| II. 학습이론을 통한 효율적인 글쓰기 과정 제고 | IV. 결 론 |

*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 today95@hanmail.net

I. 서 론

본격적으로 대학 글쓰기 교육이 시작된 이래 근래로 올수록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형식적이었던 이전의 글쓰기 수업과는 달리 다양한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실용적인 글쓰기를 강화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졸업 전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으로 삼고 있으며, 기초 교양교육원을 신설해서 글쓰기, 말하기 등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글쓰기 수업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졸업 후의 사회적 요구뿐 아니라 대학 재학 기간 중에도 보고서를 비롯해서 공모전, 장학금 신청 등에도 글쓰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과 사회 그리고 학생들도 필수 과목으로 인식하는 대학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대학 글쓰기의 공통적인 목표는 학문 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담화능력의 강화’¹⁾이다. 하지만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매우 다른 글쓰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학에서 구성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학문 공동체의 담화능력 신장’이라는 사회의 요구와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을까.

학문 공동체의 담화 능력을 키우고 학술적 글쓰기를 원활하게 한다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대학 글쓰기 교재²⁾들은 그 구성이 대동소이하다. 우선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글쓰기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다. 근래에 글쓰기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학생들에게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글쓰기 절차와 구성 방법이다. 글감을 찾고 주제문을 작성한 후 이를 중심으로 단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서술방법에 대한 것이다. 정의, 비교, 대조, 묘사, 서사 등 글쓰기에 필요한 서술방법을 제시한다. 네 번째는 문법에 대한 것이다. 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의 실제 부분으로 다양한 글의 종류와 각 글쓰기의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견해 중 하나는 학습지도 방법이 학생들의 인지 과정의 발달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지적 기능을 활용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³⁾ 이런 견해와 학문 공동체의 ‘담화 능력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에게 단순히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단계별 글쓰기 과정을 제공해서 인지 과정의 발전과 확산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1) 최상민, 「대학생 글쓰기 지도에서 평가 준거의 설정과 활용 문제」,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2011, 226쪽.

2) 건국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창의적 글쓰기의 기법』, 조울, 2012.

서울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대학국어-글 읽기와 글쓰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오성호, 『대학 글쓰기』, 새문사, 2008.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 편찬위원회, 『우리말과 글쓰기』, 이화여자대출판부, 2013.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편찬위원회,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태학사, 2015.

홍인숙,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보고사, 2015.

3) 이해명,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과학사, 1997, 52~53쪽.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교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쓰기는 ‘단계적’이라기보다는 ‘학술적 글쓰기의 여러 종류’에 더 가까워 보인다. ‘보고서 쓰기’, ‘독서, 영화 감상문 쓰기’, ‘요약하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을 글쓰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각 글쓰기 과제별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하나의 글쓰기가 다음 글쓰기의 전략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학 글쓰기가 1학년 수강과목으로 배정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대학 글쓰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 필자들이 글쓰기 과제에 대한 ‘부적합한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학술적 담화 공동체’에 새롭게 진입한 필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인지능력이나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담화공동체 관습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은 담화 공동체의 담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⁴⁾ 즉 학생들이 수업에서 글쓰기의 목적과 단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게 하고, 교수자가 요구하는 글쓰기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글쓰기 수업의 과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의 목표와 커리큘럼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수자가 제시한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리큘럼 표상을 통해 한 학기의 글쓰기 목표를 인지해야 한다. 커리큘럼 표상은 학생들이 교수자가 제시한 ‘글쓰기 실제’의 단계와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글쓰기 과제를 표상⁵⁾하고 교수자의 요구에 맞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술적 담화 공동체 안에서 원활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이루어질 글쓰기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목적과 과정에 대한 표상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쓰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표상을 통해 올바른 글쓰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착안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과정과 단계의 표상을 돕고, 글쓰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교수 학습이론에 주목했다. 특히 과정 중심의 작문교육에서는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장에서는 구성주의 교수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글쓰기 과정을 제고하고, 세 번째 장에서 단계별 글쓰기 전략을 사례⁶⁾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4) 이윤빈·정희모, 「과제 표상 교육이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 13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10, 464쪽.

5) ‘과제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제 수행자가 과제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떠한 절차와 전략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성하는 심적 이미지를 의미한다. 위의 책, 463쪽.

6)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말과 글쓰기’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글쓰기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II. 학습이론을 통한 효율적인 글쓰기 과정 제고

인지심리학자는 학습자 개인이 어떻게 지식 구조를 만들고 추론과 문제해결 전략을 창안하고 습득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식, 발견, 창조된 지식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가? 인간을 어떻게 자료를 인출하고 결과를 산출하는가?’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이해를 획득하는가에도 관심을 가진다.⁷⁾ 인지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교육이론가 Tyler는 Piaget의 세 가지 인지 과정을 전제로 학습경험을 조직하는 세 가지 방법⁸⁾을 고안했다.

- 1) 계속성 : 교육 과정은 수직적 반복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즉 기능과 개념이 되풀이 되어야 하며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2) 계열성 : 교육 과정은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전 경험에 입각하여 다음 단계의 경험이 제시되고 경험이 점점 심화,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 3) 통합성 : 교육 과정 경험의 수평적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경험의 조직은 이미 가르친 다른 요소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으로 즉 다른 교과와 분리된 내용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우선 교육 과정은 점진적으로 발달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이 다음 단계의 경험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하고, 선행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경험이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개념과 기능들을 되풀이하고 학습자들에게 반복적인 경험을 하게 해서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 글쓰기의 목표가 ‘학문 공동체로서 담화능력의 강화와 성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쓰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담화능력이 점진적으로 발전, 확대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론과 기능들을 각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글쓰기 교육 과정은 이해와 경험이 점점 심화하고 확대, 발전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미 경험한 조직들이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과정을 수평적 과정과 수직적 원리로 구성하기 위해서 교수 학습이론 중 구성주의에 주목했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학습자가 의미와 이해를 창출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보를 내면화하고 변화시키며 재구성해야 한다. 또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이 계속 발전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자신이 다양한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를 구성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⁹⁾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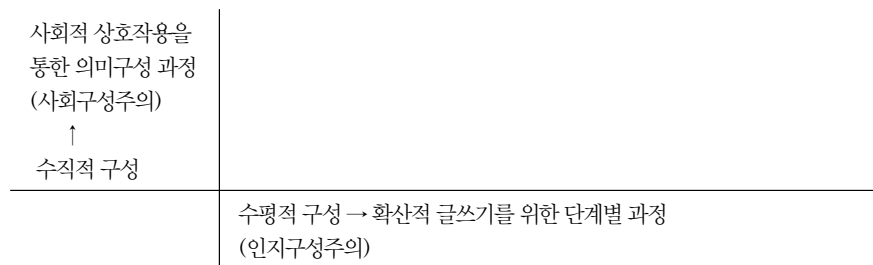
7) Allan C. Ornstein, Francis P. Hunkins(저), 장인실 외(역), 『교육과정 : 기초, 원리, 쟁점』, 학지사, 2007, 180쪽.

8) 위의 책, 183~184쪽.

9) Allan C. Ornstein, Francis P. Hunkins, 앞의 책, 195쪽.

하는 작문이론에서는 학습자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하나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때 서로 연계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담화 능력 신장을 위해 단계별 글쓰기 과정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의 글쓰기 목표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과정의 표상을 도와야 한다. 이때 표상된 글쓰기 과정은 학습자들이 글쓰기 과제 수행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구성주의에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 구성주의와 Vygotsky의 사회문화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구성주의가 있다. Piaget는 지식이 형성되는 방법에 주목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기제와 낮은 수준의 지식이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변화해 가는 경로를 밝히고자 했다.¹⁰⁾ Vygotsky는 높은 수준의 정신 기능은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공유된 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된 지식이 개인적으로 내면화되어 인지발달의 일부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발달과 학습에서 부모나 유능한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¹⁾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인지 구성주의는 수평적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즉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과 지식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글쓰기 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구성할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는 각 단계의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즉 각 단계별 글쓰기 활동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 구성주의 작문이론에서는 의미구성을 하나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는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또 작문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파악하여 필자들은 작문과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필요한 전략을 계획하거나 적용하면서 자신의 쓰기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인지 구성주의 작문이론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의 수평적 단계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글쓰기의 최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학 글쓰기 교재들에서는 대부분 통합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담고 있는 글쓰기의 최종 종착점을 학술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글쓰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통합적 사유능력을 함의하고 있는 분

10) 권낙원·김동엽,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문음사, 2006, 139쪽.

11) 위의 책, 154~156쪽.

12) 박태호, 「구성주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본 작문 이론의 전개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9, 76~77쪽.

석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글쓰기', 즉 학술논문 작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사회 구성주의에서 Gergen(1985, 1995)은 의미구성의 주체를 담화공동체로 보고 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사회집단의 활동을 중시하는데, 이를 해석 공동체나 학문 공동체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은 담화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언어적 실체이다.¹³⁾ 즉 담화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의미를 구성하는데 주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 과정은 확산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단계별 과정으로, 수직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종 목표인 '학술적 글쓰기'에 도달하기 위한 확산적인 글쓰기를 하려면 출발점을 설정해야 한다. 우선 글쓰기의 출발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글쓰기는 종류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행위¹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글이든 자신의 감정, 견해, 이해의 정도 등을 표출하는 하나의 자기표현 행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솔한 '나'의 모습을 확인, 탐색하고 이런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자기 성찰 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를 탐색하고 표출하는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 다음에는 타인의 관점과 견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성찰적 글쓰기 다음 단계는 나를 넘어서 타인의 견해와 지식의 집적물인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텍스트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독서나 비평을 통해 독자에게 해석되기 전의 원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용미학자들이 텍스트와 작품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다. 담화가 직접적이라면 텍스트는 매개된 것이다. 담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지만 텍스트에서는 현존하는 화자와 청자가 없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이런 의미론적 자율성은 텍스트에 대한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텍스트는 타인의 생각, 견해 혹은 타인의 지(知)의 집적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책뿐 아니라, 신문기사, 비평문, 학술지 논문, 영화, 공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텍스트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책' 텍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서평'과 '문화비평'이라는 글쓰기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지식의 집적물인 텍스트 분석을 통한 글쓰기 다음의 확산적 단계는 '사회적 소통과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자아와 타인이 공존하는 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사회와 상호작용 하면서 사회현상과 사회문제 등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것으로 수행할 수 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학생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접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로를 통해 당대 사회, 문화, 정치 등 시의성

13) 위의 책, 72~73쪽.

14) 정기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531쪽.

15) 리콴르는 텍스트의 특징을 '의미론적 자율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를 통해 확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부터 해방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 텍스트는 독자에게 보내진다. 독자는 읽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에 참여한다.

김애명, 「텍스트 읽기의 열린 가능성과 그 한계」, 『해석학연구』 29, 한국해석학회, 2012, 110~111쪽.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시사적 현안 즉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논평하는 글로는 시론(時論), 시평(時評), 칼럼 등이 있다.

‘자아-타아-사회’ 등의 과정으로 확장적 글쓰기를 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최종 글쓰기 목표로 설정했던 통합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글쓰기이다. 사실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다양한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술적 글쓰기를 원활하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정의와 목적은 여러 대학교재에서 상이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많은 대학들에서 1학년을 중심으로 글쓰기 수업을 배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신입생 필자에게 ‘학술적 글쓰기’는 다양한 표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쓰기 교육에서 커리큘럼에 대한 표상이 중요한 만큼 학술적 글쓰기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표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글쓰기는 ‘학술적 담화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사고 및 표현 방식을 습득하여 담화를 생산하는 것’¹⁶⁾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를 학생 필자들에게 과제로 표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했던 텍스트 분석과 사회적 소통의 글쓰기가 학술적 글쓰기의 앞선 단계라고 전제한다면, 텍스트 혹은 사회에 대한 통합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글쓰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학술적 글쓰기는 관심 대상을 중심으로 특정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주제를 정한 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을 증명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특정 관심 대상은 문학 텍스트, 문화 텍스트 등일 수도 있고, 사회적 현안일 수도 있다. 즉 통합적 사유를 통한 학술적 글쓰기의 첫 번째 과정인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특히 텍스트 분석과 사회적 소통의 글쓰기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단계들의 선행 경험들을 통해 최종 목표인 학술적 글쓰기의 과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자아-타아-사회-통합적 사유’ 총 4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즉 자아의 이해에서 출발해서 타인과 사회와 소통하고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확장적인 글쓰기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각 과정은 담화공동체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에 앞서 글쓰기 단계와 목적에 대해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커리큘럼의 표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글쓰기 단계를 유형, 예시, 목적 등을 중심으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직적 의미 구성 과정 ↑	글쓰기 유형	자기 탐색과 글쓰기	텍스트 분석과 글쓰기	사회적 소통과 글쓰기	통합적 사유와 글쓰기
	글쓰기 예시	자기성찰 글 자기소개서	서평 문화비평	시론, 시평 칼럼	소논문 학술논문, 보고서
	글쓰기 목적	자기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글쓰기	타인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글쓰기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글쓰기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타자와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통합적 글쓰기
	→ 수평적 글쓰기 과정				

16) 이윤빈, 「대학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165쪽.

Ⅲ. 글쓰기 교육의 단계별 과정

1. 1단계 : 자기 탐색과 글쓰기

글쓰기 근본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역시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의 출발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아의 감정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글쓰기’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기를 떠올린다. 그리고 대학 교재에서도 자신에 대한 글쓰기는 주로 ‘자기소개서’ 글쓰기로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에게도 대학 생활 동안 장학금 신청, 공모전 응모, 동아리 가입, 취업 등 자기소개서를 써야하는 여러 상황과 부딪히게 되므로 실용적인 글쓰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1학년에 배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종류의 자기소개 글쓰기는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교수자들도 ‘자기 글쓰기’ 교육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 연구¹⁷⁾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교수자들은 실용적인 자기소개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부 교수자들은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탐색 글쓰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인식의 간극을 줄이고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제시하고 실제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 제시가 필요하다.

우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를 정확하게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성찰과 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한다면 성찰적 글쓰기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의 자기소개서 쓰기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 학생들에게 단순히 자기를 알아가기 위한 자기 탐색 글쓰기를 실시할 경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글’에 대해 대부분 자신을 소개하는 글쓰기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기 탐색 글쓰기의 방향은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사랑하는 것, 싫어하는 것, 트라우마, 자신의 장단점’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학생들의 글쓰기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다음 예시는 자기 탐색의 글쓰기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결과물이다.

순간, ‘내가 아이히만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선생님의 힐난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학급에 있는 ‘은파’의 존재를 사유 없이 받아들였고 나도 모르는 새 ‘평범한 악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지식이 활자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되어 내 삶에 나타났던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글자와 나를 분리시켜 이해하던 나에게 책의 지식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이 경험은 훗날 내 삶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7)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실용적인 자기소개 작성법을 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 탐색 및 자기 서사의 글쓰기를 통해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글쓰기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정아, 「대학 글쓰기로서의 자기소개서 쓰기 방법 연구」, 『우리어문연구』 46, 우리어문화회, 2013, 170쪽.

나는 실천 지성, 행동하는 지성으로 한 뼉 내딛은 이 순간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학생 글)

위 예시 글의 학생은 고교 시절의 경험과 당시 읽고 있었던 책의 사유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순간’에 대해 자기 성찰적인 글을 작성했다. 이 학생은 고교시절 많은 책들을 읽고 지식을 쌓았지만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글을 시작했다. 사유 없이 받아들이던 소외된 친구의 존재를 통해 자신이 ‘평범한 악인’이었다는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을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로 인식한다. 이런 자기 탐색적 글은 ‘자신’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기표현 욕망의 해소에 도움이 되며 ‘서사(이야기)’ 형태를 띠는 점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도 관여한다.¹⁸⁾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탐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와 견해를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때 자기 탐색적 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에 접근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한다. 자기 탐색을 통한 자기 통찰과 자기 문제의식의 발견은 타인과의 소통과 세계 발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인과 세계에 대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제들은 실용적인 자기소개서 쓰기의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기소개서는 단순한 이력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혹은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탐색의 글쓰기는 자신에 대한 통찰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의 출발점인 타인과 세계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정서와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2단계 : 텍스트 분석과 글쓰기

자기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었다면 다음은 타인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글쓰기를 구성할 수 있다. 텍스트는 타인의 창의적인 지적 산물이자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문화 텍스트와 서적 등의 감상을 통해 타인의 견해와 관점을 이해, 분석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즉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비평문인, ‘서평’과 ‘문화비평’ 등을 두 번째 글쓰기 과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비평은 어원적 의미에서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동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평에서 ‘比’는 손으로 치다, 바로잡다, 판정, 품평하다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評’은 ‘헤아리다, 논평하다, 선악을 따지다, 고치다, 판정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어원적 의미를 볼 때 비평은 ‘사물의 시비를 가려 우열을 논하여 평가하는 행위’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비평 형식의 텍스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현대사회가 그만큼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그 소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회

18) ‘성찰’이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행위’이다. 삶에서 현재와 과거의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고 평가하는 성찰적 태도가 필요한 이유는 역사를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찰적 태도는 표면적으로 과거를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살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체의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서전과 자기소개서 쓰기 연계 교육방안」, 『화법연구』 14, 한국화법학회, 2009, 126쪽.

구성원을 선호하는 경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⁹⁾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서도 문화적 도구와 인지발달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적 도구는 개인의 지식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매체들과 언어 등과 같은 상징적 도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추론과 문제해결 등의 높은 정신 기능들은 언어, 기호, 상징과 같은 심리적 도구들에 의해 중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아이디어와 사고를 교환하고 개념들을 표현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고 내면화한다. 내면화란 사회적 활동이 개인의 내면적 정신 활동으로 변화되는 과정,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 지식이 개인의 인지구조에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이렇게 볼 때, 텍스트는 글쓰기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그 활용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읽기 자료의 선택과 활용적 측면이다. ‘학술적 글쓰기’의 과정은 주제를 정하고 읽기 자료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제를 정하는 것은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읽기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학술적 글은 읽기 자료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²¹⁾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읽기 자료들을 취사선택해 읽고 분석함으로써 지식의 확대 재생산과 내면화를 도울 수 있다. 이는 서평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창의적 표현의 집적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분석해본다는 측면이다. 이때 텍스트는 소설, 시, 수필 등과 같은 문학작품과 영화, 드라마, 광고, 공연, 전시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서평은 독서 후, 내용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서평은 텍스트에 대한 정보설명과 객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²²⁾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대상 텍스트는 타인의 지적 산물이라 견해이므로, 서평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전제로 하며, 타자와의 소통을 담보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서평 텍스트는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전문 자료를 선택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논문 쓰기 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혹은 대중적 자료들과 문학작품 소설, 시, 수필, 에세이 등을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은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쓴 학생의 서평이다.

소설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긍정한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발견된다. 그토록 자유롭게 살길 바랐던 둘째 딸 또한 엄마의 굴레를 반복한다는 점 또한 그러하다. 자유로이 대학과 집회를 다니며 옳은 세상을 외치던 소위 운동권 딸이 힘이 들 때면 장독 뚜껑을 깨어버리던 엄마처럼 ‘조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 라고 고백하며 세 아이 때문에 사라진 엄마조차 제대로 찾아다니지 못하는 또 다른 희생적 어머니상으로 변모하는 것은 다분히 아이러니하다. 마지막의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다’며 자신의 엄마에게로 가는

19) 비평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해석적 성격, 2. 상호텍스트적 성격, 3. 비판적 성격, 4. 통합적 성격, 5. 메타적 성격, 6. 주체적 성격

전국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앞의 책, 2012, 271~275쪽.

20) 권낙원·김동엽, 앞의 책, 154~156쪽.

21) 김정일,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62, 범한철학회, 2011, 394쪽.

22) 독서 감상문, 비평문, 서평의 비교를 통해 서평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은 정보제공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설명’과 ‘설득’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서평은 대상 텍스트를 읽지 않은 타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자 중심적’인 글이다. 셋째, 전달 방식이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중적이고 사회적’이다. 손혜숙, 「대학 글쓰기에서의 서평 쓰기 교육방법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15, 550쪽.

엄마의 모습은 감정노동과 가사노동 등을 또다시 엄마에게 떠맡기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이다. 결국, ‘엄마를 부탁해’는 기존의 엄마에 대한 향수와 미안함은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그 모든 어머니상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생 글)

이 글을 쓴 학생은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신경숙 작가가 표현한 엄마의 역할과 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딸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엄마와 달리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딸 역시 엄마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이 혹은 작가가 엄마의 역할을 긍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신경숙 작가와 등장인물과의 소통을 통해 타자의 견해를 탐색하는 것이며 그들에 대해 이해하고 비평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학생 필자는 독서를 통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세계를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아를 넘어 타자와 소통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확산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 문화비평은 문화 텍스트를 감상하고 이해한 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대학 교육에서 글쓰기 수업이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변화를 겪게 된다. 기존에는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전문적인 서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문화’를 강의 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다. 텍스트에 대한 선택의 지평이 다양해지고 넓어진 것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매체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에서 각광받는 문화 콘텐츠의 변화와도 맞물려있다. 또한 텍스트의 범주는 학생들의 선호도와도 관련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철학 서적 보다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텍스트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²³⁾ 더군다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삶과 예술, 저급과 고급 등의 이분법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도 희미해졌다. 이런 영향으로 영화는 물론 웹툰, 대중가요, 드라마, 게임, TV 프로그램 등이 모두 비평 텍스트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비평은 이렇게 당대의 변화하는 문화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을 감지하는 감수성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²⁴⁾ 그리고 이런 통찰력은 타인의 지적 산물과 관점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제강점기의 ‘사의 찬미’ 노래를 대상으로 당대의 문화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게도 ‘사의 찬미’를 접하게 된 건 음악학이 아닌 물리학에서이다. CD의 제조원리를 알아보는 과제수행 중 레코드에 녹음된 음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음악이 바로 ‘사의 찬미’이다. 블루레이와 레코드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 재생한 이 음악을 듣다가 흠칫 놀란다. 물론 지금의 최첨단 기술로 매끄럽게 구워낸 무결점 사운드를 기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무려 1920년대, 시대가 시대인지라 목소리를 침핀으로 콧코 찍어서 받아 적어 놓은 듯한 레코드판에 녹음되어 있었던 탓이라 생각하고 싶었으나, 비단 레코드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노래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스산함과 그녀의 구슬픈 목소리, 단조에서 머물러 울리는 멜로디. 분명 노래 자체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

23) 권명아, 「문화 산업 시대의 텍스트 독해와 글쓰기 교육」, 『현대문학의 연구』 18, 현대문학연구학회, 2002, 85~86쪽.

24)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 편찬위원회, 앞의 책, 207쪽.

다. 목소리의 주인공 윤심덕. 그녀는 왜 ‘사의 찬미’를 이렇게 슬프고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로 레코드에 담게 되었을까...(중략)...주검이 되어서야 스캔들과 함께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던 조선의 여성 대중예술가. 그녀의 레코드판에서 깊은 밤 혼자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슬픈 곡조가 흘러나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살벌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죽음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운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히려 칼바람이 부는 절벽 위를 걸어가야 했지만, 그녀의 대중음악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쏟았던 그 정신을 높이 산다. (학생 글)

이 글에서 윤심덕이 불렀던 ‘사의 찬미’는 대중문화의 의미를 넘어, 여성에게 더 가혹했던 당대를 살아갔던 여성 대중예술가의 고독한 운명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되고 있다. 또한 문화비평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근거해서 작품의 의미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당대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문화적 맥락도 담지하고 있다. 학생 필자는 일제강점기라는 물리적 시간과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사의 찬미’ 텍스트를 통해 당대 여성 타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그녀들이 겪어야 했던 시대의 질곡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화비평은 문화적 맥락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 마지막 글쓰기 과정인 학술적 논문에서 필요한 문제의식 발견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즉 서평과 문화비평은 타인의 지적 산물인 텍스트 읽기와 분석을 통해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고 성찰하며 비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3. 3단계 : 사회적 소통과 글쓰기

지적 산물인 텍스트 분석을 했다면 다음 글쓰기 과정은 ‘사회적 소통’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매체의 발달로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접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에 빈번하게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글은 칼럼과 시론 등이 있다. 이때, 현시대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있는 사안을 통해 사회와의 교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기 어려운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사안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 필자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시대인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왜 중요하며 이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등을 충분히 서술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²⁵⁾

이런 종류의 글쓰기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서평이나 문화비평에 처처럼 특정 텍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나 현안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화제에 접근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신의 견해는 사회적 현상과 현안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자 ‘입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증명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는 글쓰기의 형식적 이해와 기술적 활용능력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 논

25)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 편찬위원회, 앞의 책, 224~225쪽.

리적, 창의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찰적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⁶⁾ 이런 점에서 시론, 칼럼 등은 지정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아닌,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이를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대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현실 인식이나 역사의식의 함양 등도 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도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안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쓴 학생 글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전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충분했다. 더군다나 원전사고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간재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누출은 그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미량의 방사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고이테 히로야키에 의하면 인체에 영향력 없는 방사선이란 없으면 X레이같이 적은 피폭만으로도 DNA 사슬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히로세 다카시에 의하면 적정량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을 비롯해서 갑상선 장애, 방광암, 근육종 등이 발병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 자손들에게도 유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학생 글)

이 글에서 학생은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폐쇄냐의 현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학생 필자는 원전 건설과 유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몇 년 전 발생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미량의 방사능은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지만 X-레이 같은 미량의 피폭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학생 필자는 ‘고이테 히데로’의 책을 참고문헌으로 활용해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텍스트 분석의 글쓰기는 이렇게 시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후 단계인 통합적 사유의 글쓰기에서도 활용되어 확산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 즉 타인의 견해와 관점을 시론이나 칼럼 등의 글쓰기에서 찬성과 비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론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며, 타인들의 집합인 사회와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비평한다. 따라서 시론과 칼럼은 ‘자아-타아-사회’로 관심을 확장시키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4. 4단계 : 통합적 사유와 글쓰기

마지막 단계는 글쓰기의 최종 목표로 설정한 통합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학술적 글쓰기이다. 이런 학술적 글쓰기는 ‘소논문’, ‘보고서’ 등의 과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데,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제 중 가장

26) 조윤아, 칼럼 쓰기에 대한 학습자 반응 및 지도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345쪽.

높은 수준의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논증해 놓은 글이다. 기존의 연구 업적들을 바탕으로 불충분했던 연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들에 대해 새로이 발견한 사실은 독자적인 견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들어 증명해 보이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다.²⁷⁾

화제 선정에서 텍스트 분석일 경우 문학작품, 영화, 드라마, 웹툰, 공연 등을 대상으로 1차적인 감상 후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문화비평 글쓰기가 학생 필자들에게 선행되었다면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한 접근도 이미 이를 통해 경험했을 것이다. 다만, 텍스트에 대한 접근방법이 유사하더라도 문화비평과 소논문은 구별되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문화비평은 텍스트를 감상하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면, 소논문은 텍스트에서 특정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펼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것을 논문의 화제로 선정할 경우 시의성 있는 사회적 현안의 원인, 문제점, 해결방법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역시 시론이나 칼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칼럼이 비평의 형태라면 소논문은 사회적 현안을 깊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형태로 구성해서 분석해야 한다. 다음 학생 소논문에서 예시 1번은 웹툰 텍스트를 중심으로 나열식 분석을 한 것이고, 예시 2번은 사회적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식 분석을 하고 있다.

〈학생 소논문 예시 1〉	〈학생 소논문 예시 2〉
단순 개그를 뛰어넘은 ‘병맛’이 20대에게 주는 의미 - 웹툰 『이말년 씨리즈』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웃음과 풍자가 형성하는 사회적 동질감 1. 반전과 패러디를 통한 웃음 유도 2. 사회 현실과 문제점 환기 III. 불완전한 형식이 주는 심리적 안도감 1. 완성도가 부족한 구성 2. 조악한 그림체 IV. 결론	원자력, 인류의 축복인가 인류의 재앙인가 I. 서론- 원자력 발전의 의미와 문제 제기 II. 원전사고의 원인 1.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 일본 후쿠시마 3.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사고 - 미국 스리마일섬 III. 원전사고의 문제점 분석 1.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축소 발표 2. 사고 진화에 대한 실전 경험의 부족 3. 일부 지역 사고의 전세계적 영향 V. 원전사고 해결방안 1. 각국 정부들의 정보 공유 2. 대체 에너지 개발 노력 VI. 결론

27) 건국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앞의 책, 503쪽.

예시 1은 웹툰 ‘이말년 시리즈’의 ‘병맛코드’가 20대에게 주는 의미를 심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20대들은 불안한 사회에서 이 웹툰을 통해 사회적 동질감과 심리적 안도감을 얻는다고 분석한다. 즉 학생 필자는 ‘이말년 시리즈’라는 텍스트의 특징과 이 특징이 20대에게 주는 심리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관점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특징과 이 텍스트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자아-타아-사회’에 대한 통합적 사유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2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사회적 현안을 중심으로 원전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학생 필자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 이후 일어난 세계 최악의 3대 원전사고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인을 관리자의 부주의, 자연재해, 기계 고장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필자의 사회적 관심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서적을 통해 타인의 견해를 수용 혹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견해를 원활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아표현-텍스트 분석-사회적 소통’이라는 통합적 사유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문 공동체의 담화능력 강화와 성장’이라는 최종의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

IV. 결 론

근래로 올수록 글쓰기, 말하기 등 대학의 인문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 교재들에서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계적이라기보다는 글쓰기의 여러 종류 제시에 더 가깝다. 학습이론의 중요한 견해 중 하나는 학습방법이 학생들의 인지 과정의 발달을 형성해야 하며, 다양한 지적 기능을 활용하고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이론 중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에 주목했다. 인지 구성주의는 지식이 형성, 발전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주의는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의해서 지식이 내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 글쓰기의 목표가 ‘학문 공동체로서 담화능력의 강화와 성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수평적으로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담화능력을 점진적으로 발전, 확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수직적으로는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이론과 기능들을 각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아-타아-사회-종합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확산적 글쓰기 과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탐색과 글쓰기’인데, 이는 자기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으로 자기 성찰적 글과 자기 소개서 등으로 수행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텍스트 분석과 글쓰기’이며, 이는 텍스트 읽기와 분석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으로 서평과 문화비평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소통과

글쓰기'이며,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시론, 시평, 칼럼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적 사유와 글쓰기'인데, 이는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타자와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통합적 글쓰기로 소논문과 학술논문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아-타아-사회-통합적 사유', 즉 자아의 이해에서 출발해서 타인과 사회와 소통하고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단계별 확산적 글쓰기 교육 통해, '학문 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담화능력 강화와 성장'이라는 대학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각 글쓰기의 의미 구성에 대해서는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건국대학교 글쓰기 연구회, 『창의적 글쓰기의 기법』, 파주: 조울, 2012.
- 교재편찬위원회, 『글쓰기의 이론과 활용』, 서울: 보고사, 2004.
- 권낙원, 김동엽,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용인: 문음사, 2006.
- 서울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대학국어-글 읽기와 글쓰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 오성호, 『대학 글쓰기』, 서울: 새문사, 2008.
- 이해명, 『교육과정 및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 편찬위원회, 『우리말과 글쓰기』,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13.
- 임석진 외 편저,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9.
-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편찬위원회,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파주: 태학사, 2015.
- 홍인숙,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서울: 보고사, 2015.
- Peter Bieri(저), 문항심(역), 『자기결정』, 서울: 은행나무, 2015.
- Allan C. Ornstein, Francis P. Hunkins(저), 장인실 외(역), 『교육과정 : 기초, 원리, 쟁점』, 서울: 학지사, 2007.
- Dale H. Schunk(저), 노석준 외(역), 『학습이론-교육적 관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6.
-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이해와 개발』, 서울: 교육과학사, 2010.

〈논문〉

- 권명아, 「문화 산업 시대의 텍스트 독해와 글쓰기 교육」, 『현대문학의 연구』 18, 현대문학연구학회, 2002.
- 김애령, 「텍스트 읽기의 열린 가능성과 그 한계」, 『해석학연구』 29, 한국해석학회, 2012.
- 김영만, 「매체를 활용한 읽기, 쓰기 교육 방안 연구-신문사설, 칼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서전과 자기소개서 쓰기 연계 교육방안」, 『화법연구』 14, 한국화법학회, 2009.
- 박태호, 「구성주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본 작문이론의 전개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9.
- 서상준 외, 「대학 작문 교육 방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34, 호남문화연구소, 2004.
- 손혜숙, 「담화 활동과 연계한 대학 칼럼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대학작문』 9, 대학작문학회, 2014.
- 손혜숙, 「대학 글쓰기에서의 서평 쓰기 교육방법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15.
- 원만희,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실습 메뉴얼 - 두 유형의 글쓰기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5, 한국작문학회, 2015.
- 이윤빈, 「대학 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 이윤빈 · 정희모, 「과제 표상 교육이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2010.
- 이정아, 「대학 글쓰기로서의 자기소개서 쓰기 방법 연구」, 『우리어문연구』 46, 우리어문학회, 2013.
- 정기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진정일,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62, 범한철학회, 2011.
- 최상민, 「대학생 글쓰기 지도에서 평가 준거의 설정과 활용 문제」,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2011.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Academic Writing Processes And
Method Through Educational Theory**

Lim, SunSook*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writing curriculum should precede for students to perform during the curriculum, and to propose a step-by-step writing curriculum.

The first step is “self-exploration and writing,” in which a learner understands himself and explores so that he can produce a writing of self-examination and self-introduction. The second step is “text analysis and writing,” in which a learner understands others through reading and analyzing texts, and through exploration he can produce book reviews and literary criticism. The third step is “social communication and writing,” in which a learner interacts and communicates with society, and from this he can produce poetic theory, opinion and columns. The fourth step is “integrated reasoning and writing,” in which a learner understands others and the world, and through self-exploration and analysis, he can produce integrated writings such as a thesis and academic papers.

[Key Words] Self-exploration, Text analysis, Social communication, Integrated reasoning, Academic writing

* Visiting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